농촌계획
vol. 18, no. 2, 2012 (81-90)

# 도시공원 진화상의 비판적 고찰을 통한 도시농업공원의 발전 가능성

윤희정 • 조미경*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대학원

# The Consideration of Progressive Urban Park and The Possibility of Urban Agricultural Park

Yun, Hee-Jeong • Cho, Mi-Kyoung*
*Dept. of Tourism Administr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Urban Sciences,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 Urban parks are progressing but are in chaos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refor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consider critically and classify the new paradigm of urban parks. Urban parks are one of the space products, and progressing aspects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supply, demand and market aspects. In the abstract, urban parks' progress represents process, openness or voidness, general and cultural ecology, productivity, experience program, identity or sense of place, carriers of urban regeneration, urban infrastructure, community space, multi-layered activity, active space, communication with urban space, tool of low carbon strategy and consilience. But urban parks have come under increased criticism about the long period development on trees growth, covering open space, limitation of general and cultural ecology, production, activity programs, identity and community space, visible urban regeneration, economic validity, urban sprawl, not using as the low carbon strategy, and finally negative consilience with contiguous fields. We collected these critical consideration about progressing urban parks, and proposed urban agricultural park as one of the alternative urban parks. This is closely connected with sustainable region development, low-carbon society, local food, well-being, Lohas paradigm and amenity of urban life.

**Key words** : Regional Park, Agricultural Park, Community, Productivity, Diversity, Economic Validity, Publicity

## I. 서 론

도시공원은 과거 옴스테드식의 목가적 형태에서 소통과 다양성, 생태적 코드, 프로세스 지향성, 열린 구조 등의 특성을 갖는 '어떤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배정한, 2002; 이상민과 조정송, 2004; 김아연, 2005; 정욱주와 제임스코너, 2005). 물론 아직 그 '어떤 형태'에 대한 합일화된 명칭이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도시공원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흐름을 단순한 '변화(變化)'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진화(進化)'로 볼 것인가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원이 과거의 형상에 비해 진보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므로 '진화'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공원의 진화상이 대부분 단선적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그 대안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시공원의 진화상을 연계하여 종합하는 조감적 논의와 더불어, 각 진화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 대안을 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도시공원 연구를 종합하고 구조화하는데 있어 문헌연구에 기초한 정성적 연구방법을 수용하였다. 이때 도시공원의 개념적 범위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것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원으로 해석하였다. 이때의 도시지역은 시·군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성현찬, 2007),

Corresponding author: Yun, Hee-Jeong
Tel: 033-250-6168
E-mail: hjyun2@kangwon.ac.kr

보통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군(읍·면 단위) 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된 공원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개별적으로 흩어져있던 도시공원의 진화상을 통합하여 구조화하고, 최근 대두되는 도시농업공원이 도시공원의 진화상에 적합한 모형인지 맥을 짚어 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배경과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총 네 장으로 구성되었다. Ⅰ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Ⅱ장에서는 도시공원의 진화상에 대한 종합과 구조화를, Ⅲ장에서는 그 진화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Ⅳ장에서는 그 비판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공원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였고, 그 대안 중 하나로 농업공원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II. 도시공원의 진화상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발표된 도시공원의 진화상 관련 연구흐름을 종합해보면, 패러다임 쉬프트와 결부된 '이론적 흐름'(배정한, 2004b; 안명준과 배정한, 2009; 한소영과 조경진, 2010), 설계경기 당선작들의 분석을 통한 '선도적 흐름'(배정한, 2002; 이상경과 조경진, 2003; 이상민과 조정송, 2004; 김아연, 2005; 정욱주와 제임스코너, 2005; 박근현과 배정한, 2008; 강연주 등, 2008), 실제 대상지에 설계언어로 구현된 '실체적 흐름'(김성균, 2003; 김정윤, 2004; 김도경 등, 2008)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흐름은 도시공원의 진화상에 대한 실체를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할 수 있지만, 전체 도시 및 경제 메커니즘 속에서 도시공원을 바라볼 때 통합적 시각에 있어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시공원의 진화상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새로운 통합적 코드로서 '경제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시장의 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도시공원 역시 도시라는 거대한 시장 안에서 수요자들에게 효용(utility)을 제공하는 일종의 '공간상품'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도시공원의 진화상에 대해 공간 측면의 '공급적 진화', 이용 측면의 '수요적 진화', 시장내부의 본질적 변화에 해당하는 '시장적 진화'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 1. 공급적 진화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공급적 진화의 조작적 정의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진보방향을 의미하며, 이러한 개념화에 따라 여덟 갈래의 진화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과거의 도시공원이 단순한 결과물이었다면 현재의 또는 미래의 도시공원은 시간성을 중시하는 '과정으로의 공원'으로 진보하고 있다. 이것은 제임스 코너의 '생태적 조경'의 개념-완결이 아닌 과정, 전략, 계기를 만드는 것-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제와 맥을 같이 한다(배정한, 2004a). 과정으로서의 도시공원이 가지는 의미는 지속가능한 설계전략을 통해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추가 혹은 변경할 수 있는 오픈 엔딩(open-ending) 형식을 갖는다는 점이며(정욱주와 제임스코너, 2005), 공간의 기억을 되살리는 재생과도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배정한, 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브리지 파크(Bridge park), 프레쉬 킬스(Fresh kills) 설계경기에 이러한 진화상이 잘 표현되었다고 평가된다(김아연, 2005; 정욱주와 제임스 코너, 2005; 박근현과 배정한 2008).

둘째, 과거의 도시공원이 무엇인가로 꽉 채워진 공간이었다면 최근의 공원은 자유로운 행위를 담을 수 있는 '열린 공간', 혹은 '빈 공간'을 지향한다. 이상민(2006)은 과거 추상적 설계 개념이 공간 구분의 원리가 되었고, 공간 구분은 '채워넣기식 설계'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열린 공간 혹은 빈 공간은 일종의 여백의 미이며 미결정의 호기심, 열린 구성이자 유연한 계획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경과 조경진, 2003; 배정한, 2004a; 김아연, 2005). 또한 이것은 이용자들에게 행위의 자유성과 창의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김아연, 2005), 라빌레트 공원(Parc de la villette), 브리지 파크(Bridge park), 대만 치치 지진 메모리얼 파크 당선작에서 잘 표현되었다고 평가된다(김정윤, 2004; 배정한, 2004b; 김아연, 2005).

셋째, '도시공원=초록'이라는 공식 성립의 일등공신인 생태학적 접근이 점차 '일상적·문화적 생태학'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서양에서 유래한 자연과 문화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의 탈피라고도 해석할 수 있으며, 이 흐름 속에서 생태학은 '초록'만이 아닌 다양한 일상의 문화가 가미된 '혼색'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상적·문화적 생태전략은 다운스뷰파크(Downs-view park), 프레쉬 킬스(Fresh kills), 뉴욕 하이라인(High-line), 브리지 파크(Bridge park) 설계경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배정한, 2004b; 김아연, 2005).

넷째, 경관을 시각적으로 소비하는 도시공원이 의미있는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공원'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중심 흐름은 도시 자체가 과소비적이라는 데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설계공모의 설계지침에는 '생산하는 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박근현과 배정한, 2008), 결선작들

은 '키친가든'을 통한 농산물 생산, 직거래, 바이오매스 등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박근현과 배정한(2008)은 이 키친가든을 시민참여와 공원의 생산성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공원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강북대형공원은 지형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 다락논을 디자인 모티브로 활용하면서 재배정원을 도입하여(김도경 등, 2008) 공원의 생산성을 실체적 설계개념으로 도입한 바 있다.

다섯째, 도시공원은 형태 위주의 물리적 공원에서 '프로그램 위주의 체험공원'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상민과 조정송(2004)은 도시공원 설계 시 '공간 채우기', '이름 붙이기' 식의 접근이 공간에 과도한 물리적 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도시공원은 물리적 내용물을 채우고 이름을 부여하는 대신, 이용자의 다양한 행위를 담을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 위주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 흐름은 공간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을 배려하는 접근으로, 서울시청앞 광장처럼 행위중심적인 설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섯째, 도시공원이라는 삼차원적 물리공간이 지역의 다양한 경험들이 중첩되는 다차원적인 '장소성', '정체성(고유성)' 발현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김성균(2007)은 면목역 만남의 광장 설계 시 지역의 장소적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과거로부터의 시간 축을 공간의 골격으로 표현한 바 있다. 정영진과 정욱주(2009)는 대규모 국제공모전이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공간창출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글로벌리즘과 지역 정체성의 결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도시공원에 인간경험의 층위가 두터워지는 것은 결국 공원의 사회문화적 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째, 기존의 도시공원이 도시 내 새로운 공간 창출 매개체로 활용되었다면, 최근의 도시공원은 '과거를 기억하는 도시재생의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다. 이때의 재생은 '상징투쟁', '기억투쟁'의 결과물로서의 '장소재현'이며(한소영과 조경진, 2010), 도시재생과 공원은 도시의 역사를 기억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가진다(정욱주와 제임스 코너, 2005). 관련하여 독일 랜드스케이프 파크 혹은 뒤스부르크 노드 파크(Landscape park), 일본 노리다케 숲공원(ノリタケの森), 미국 하이라인(High line), 서울의 선유도 등 다수의 실천적 사례들이 등장하였다.

여덟째, 최근의 도시공원은 도시의 '잉여 공간'에서 존재해야 마땅한 '도시기반시설(urban infrastructure)'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공원이 도시공간 이용에 대한 일종의 '형평성' 유지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경관을 도시의 진화와 생성을 수용하는 인프라로 이해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도 연계된다(배정한, 2004a). 관련하여 강연주 등(2008)은 도시공원을 주변과의 통합,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 2. 수요적 진화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도시공원의 수요적 진화란 공원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의 이용 행태적 진화를 의미하며, 세 갈래의 진화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도시공원이 익명적 이용자들의 일차적 집합공간에서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서울 드림랜드 부지를 활용한 강북 대형공원 기본계획에서는 인접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자립을 주요 설계개념으로 활용하였으며(김도경 등, 2008), 수원 월드컵 종합체육공원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설계경기에서도 주민 커뮤니티개념을 도입하여 도시공원의 전통적 공동체 복원을 시도하였다(김성균, 2003; 박근현과 배정한, 2008).

둘째, 도시공원은 표준화된 단층적 이용형태에서 헤테로적 구조개념(heterostructure)이 구현되는 '다양화된 다층적 이용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것은 공간과 기능의 층위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태적 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공존, 공간의 효율적 이용 등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특히, 공간요소 중 지형에 대한 조작과 다양한 상상력의 부여는(김아연, 2005) 이용자들의 행위적 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요자인 도시민 역시 감상만 하는 공원보다 농촌체험이나 환경교육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공원을 선호하기 시작하였다(주신하, 2008).

셋째, 감상과 휴식 등의 소극적 행위 중심 공원에서 '적극적', '능동적' 공원으로의 진화이다. 이것은 커뮤니티 복원수단으로서의 공원, 다양화된 다층적 이용행태가 가능한 공원형태와 긴밀하게 연계된다. 정욱주와 제임스 코너(2005)는 쓰레기 더미의 프레쉬 킬스(Fresh kills)를 녹색의 수동적 공원에서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는 능동적인 장(field)으로 계획하였다. 이는 보여지는 경치의 공원, 일상적 은유의 공원에서 기능하는 실제의 공원으로의 진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3. 시장적 진화

본 연구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의 시장적 진화는 도시구조 전체 혹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 흐름으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 수요와 공급 이외의 진화상을

의미한다. 이 진화는 세 갈래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도시공원은 도시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인공 섬이 아니라, 도시 컨텍스트의 의미 있는 일부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배정한, 2002; 정욱주와 제임스코너, 2005). 박근현과 배정한(2008)은 공원이 '화장'하는 역할에서 적극적 관계 맺기의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은 도시공원에 '유기체'적 성격을 부여하였다. 렘 쿨하스와 브루스 마우의 트리씨티(Tree city)에서는 공원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고, 도시-공원 간 쌍방향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여(배정한, 2002) 공원을 소통의 공간으로서 형상화하였는데, 이는 도시구조와 공원간의 유기적 관계를 형상화한 대표적 사례로 일컬어진다.

둘째, 도시공원은 단순한 녹색공간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실천 수단으로 인식된다. 김성진(2009)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원개발 시 생태녹지축, 녹지 확보, 원형보존녹지 설정, 비오톱 및 생물이동통로 등 도시공원과 밀접한 지표들을 도출한 바 있다. 이는 곧 도시녹지의 존재이유에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10년 서울시를 필두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현실화된 시점에서 도시공원이 탄소크레딧 혹은 탄소상쇄권 거래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시공원은 특정 학문분야의 영역에서 다양한 분야가 혼성되는 '통섭(consilience)의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것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하이브리드적 특성(배정한, 2004a)과 긴밀하게 연계된다. 즉, 도시공원은 조경, 도시, 여가(관광), 건축, 농업 등 다양한 분야가 중첩되는 교집합 영역 안에 위치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섞임의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층위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 III. 도시공원 진화상에 대한 비판적 논의

앞서 살펴본 도시공원의 경제 메커니즘 속에서의 진화양상은 도시공원 뿐 아니라 공간계획 분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진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도시공원 진화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부재는 그 대상의 발전에 있어 한계점을 동반한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공급, 수요, 시장적 진화상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 1. 공급적 진화상에 대한 비판적 논의

첫째, 과정으로서의 진화상에 대해 '수목에 국한된 장기적 시간성'의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 시간성에 기반한 과정을 중시하는 도시공원의 진화는 인공적이긴 하나 생태적 천이를 수용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도시공원의 생태적 천이 소재는 대부분 수목이며, 도시공원은 수목의 장기적 성장과정, 즉 유목에서 성목까지의 과정, 개별에서 전체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통해 시간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가는 수목을 초월하여 도시, 환경, 사회와 더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간소재에 대해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열린 공간 혹은 빈 공간으로의 진화상에 대해 '덮개위의 열린 공간'이라는 열림의 한계성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도시공원에 있어 열려 있고 비어 있는 공간은 대체로 잔디피복과 인위적 포장으로 대변된다. 즉, 이러한 공간은 입체적 구조물만 배제되어 있을 뿐 여전히 특정 행위만을 허락하는 공간인 것이다. 진정한 열림 혹은 비움 공간이라면 민낯의 토양처럼 다양한 레이어의 생태작용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상적·문화적 생태학의 한계'이다. 렘 쿨하스는 인위적으로 양산된 도시의 녹색자연은 문화를 대변한다고 하였다(배정한, 2002). 그러나 도시공원 이용자들의 문화를 대변하는 그 일상적 생태라는 것은 대부분 잔디밭을 이용하기보다 조망하는 행위로 귀결된다. 또한 '문화적 생태'는 지역민에 의해 선호되는 식생의 배식을 통해 표현된다. 일상적·문화적 생태학으로서의 공원이 표어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공원으로 발전되어야 하며(김아연, 2009), 이용자들의 삶과 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생산하는 공원으로의 진화상에 대해 '도시공원의 한정적 생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도시공원은 공간 기능적으로 산소, 시각적 녹(綠)경관, 서식처 등을 생산하고, 이용자들은 공원이 생산한 것을 순환적으로 소비하며 여가적 효용을 창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150년 전부터 도시공원에 디폴트로 저장된 녹색허파로서의 생산물이지, 새로운 생산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공원은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용어에 부합되는 물리적 생산 혹은 비물리적 영역의 커뮤니티(공동체), 인적 네트워크 등의 생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프로그램 위주로의 진화상에 대해 '부가적 기능으로서의 체험프로그램 도입'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공간으로서의 도시공원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은 공간의 효율성과 교육성, 공공성과 지역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때의 프로그램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시적, 간헐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도시공원이 행위 중심적 특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기적,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

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장소성 및 정체성 발현공간으로의 진화상에 대해 '계획가만의 지역성 구현'에 대한 논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많은 도시공원은 모듈화된 공산품처럼 비슷한 장소성 및 지역성 소재를 담고 있으며, 그마저도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난해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 지역다운 설계언어, 이용자들도 충분히 향유하고 음미할 수 있는 설계언어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곱째, 도시재생 매개체로서의 진화상에 대해 '외형적 재생수단으로서의 도시공원'이라는 한계점을 제시할 수 있다. 김아연(2009)은 DDP & Park(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사업이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위에 '공원화사업'이라는 숨겨진 녹색이데올로기에 대해 비판하였고, 도시재생 소재로서의 도시공원은 미흡한 연결고리, 경계주의, 정치적 성과주의, 속도주의의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배정한(2007)은 공장이전적지의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개성을 말살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동네공원으로 바뀐 사례를 비판하였다. 따라서 도시공원이 진정한 도시재생 매개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원의 외형만을 재생할 것이 아니라 주민 커뮤니티와 생태적 천이과정까지 재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김아연, 2009).

여덟째, 도시기반시설로서의 진화상에 대해서는 '경제성에 대한 면죄부'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도시기반시설로서의 도시공원은 여가권리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아연(2005)은 브리지 파크(Bridge park) 설계경기에서 당선안들은 경제성에 대한 소극적인 기대감만 표현하였다고 평한바 있고, 박근현과 배정한(2008)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 설계공모전의 결선작들은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단편적 설명과 이미지 위주의 다이어그램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일부 도시공원이 환경재 혹은 공공재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평가되기도 하였지만(홍성권, 1998; 권오상, 2000; 윤희정 등 2008), 이는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가상적 수치일 뿐이다. 도시기반으로서의 도시공원이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대비 효용극대화 방안과 모형개발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 2. 수요적 진화상에 대한 비판적 논의

첫째,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진화상에 대해 '익명적 커뮤니티의 복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도시공원은 아직도 장소의 혼이 배이지 않은 물리적 공간에 가까우며, 지역주민들의 활동프로그램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박율진, 2010). 도시공원에 도입된 커뮤니티공간은 주로 광장과 쉼터, 운동공간과 소규모 문화공간으로, 이들 공간은 여전히 익명적 교류공간이지 진정한 커뮤니티공간으로 기능하지 않으며, 장소애착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진정한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더 자주, 더 쉽게, 더 오래 방문하고 운영할 수 있는 설계언어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다양화된 다층적 이용형태로의 진화상에 대해 '교육과 체험에 집중된 이용행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도시공원 이용자들은 농촌체험이나 교육 등 좀 더 다양하고 다층적 이용을 선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역시 또 다른 '정형틀'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공원이용자들의 수요는 매우 다양해져가는데 여전히 도시공원은 체험, 교육 등의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 오픈스페이스로서의 도시공원에 체험과 교육, 축제, 문화소비, 시장의 거래, 레포츠 등의 다양한 행위층들이 중첩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적극적·능동적 공원으로의 진화상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 행위를 주로 허용하는 공간'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일부로 자리매김하였고 풍경을 제공하는 피난처가 아닌 일상을 체험하고 자연의 변화과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김아연, 2005). 그러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인위적 녹색경관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생태적 질서와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코드는 매우 한정적이다. 최근의 여가행태가 매우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여 시대의 여가상을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3. 시장적 진화상에 대한 비판적 논의

첫째, 도시구조와의 소통의 공간으로의 진화상에 대해 '무분별한 도시확장(urban sprawl)에 무관심한 도시공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도시의 일부이자 도시와 소통해야 하는 도시공원은 도시의 문제들을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문제 중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불규칙한 확장문제(Hidding and Teunissen, 2002; Kaplan and Austin, 2004; Sullivan and Lovell, 2006; Yu and Ng, 2006)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확장의 원인 중 하나인 '불법 경작문제'는 공원의 다층적 이용 측면에서 합법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수단으로의 진화상에 대해 '선언적 수단'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도시공원은 그 존재가치 향상에 매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교통 등 개별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모형은 다양하게

a: 배정한(2004a), 김아연(2005), 정욱주와 제임스 코너(2005), 박근현과 배정한(2008)
b: 배정한(2002), 이상경과 조경진(2003), 김정윤(2004) 배정한(2004a,2004b), 김아연(2005), 정욱주와 제임스 코너(2005)
c: 배정한(2002), 김아연(2005) / d: 김도경 등(2008), 박근현과 배정한(2008) / e: 이상민과 조정송(2004), 박근현과 배정한(2008)
f: 김정윤(2004), 정영진과 정욱주(2009) / g: 배정한(2007), 정욱주와 제임스 코너(2005), 한소영과 조경진(2010)
h: 배정한(2004a). 강연주 등(2008) / i: 김성균(2003), 김도경 등(2008), 박근현과 배정한(2008) / j: 김아연(2005)
k: 정욱주와 제임스 코너(2005) / l: 배정한(2002), 정욱주와 제임스 코너(2005), 박근현과 배정한(2008)
m: 김성진(2009) / n: 배정한(2004a), 안명준과 배정한(2009)

Figure 1 도시공원 진화상에 대한 구조화 및 비판적 논의 과정.

개발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김규일 등, 2010; 이승일, 2010), 녹지 분야는 이에 견줄 만한 연구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통섭의 대상으로서의 진화상에 대해 '인접분야와의 제한된 통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Wilson (1998)이 최초로 언급한 통섭(consilience)은 물리적 영역과 사회과학적 코드의 접합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획분야의 학문간 통섭은 여전히 물리적 공간분야, 즉 도시, 건축, 토목, 공공환경, 원예 분야에 머물러 있어 소극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분야가 진정한 통섭과 하이브리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관광학, 농학 등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 학문과의 진정한 교잡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IV. 새로운 기능의 도입으로서 도시농업공원

### 1. 도시농업공원의 가능성

앞서 살펴본 도시공원 진화상의 비판과 한계점을 상쇄하기 위한 대안의 폭은 매우 광범위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공간에 농업생산적 기능을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Ashebir et al., 2007; Bezemer, 2007; Mireri et al., 2007), 계획적 도시공원에 농업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한 '도시농업공원'을 대안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도시공원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한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강기남 등, 2007: 5 재인용), 도시농업은 도시의 생태학적, 사회문화적, 경제학적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모델로서 언급되고 있는 상황과 맥을 같이 한다. 일례로 미국은 도시평균 30%의 '식생녹지' 확보를 위해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있으며(강기남 등, 2007), 도시주부들이 도시농업을 영위하는 비율은 모스크바 60%, 런던 40%, 불가리아 33%에 육박하고 있다(권광식과 최덕천, 2005). 이러한 도시농업이 도시공간에 계획적으로 구현된 형태를 농업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농업공원은 단순한 생산기능 이외에 농산물의 자급자족을 통한 수송량 단축과 그로 인한 탄소저감, 우수재활용, 생활쓰레기 퇴비화로 인한 자원순환, 경작을 통한 표토유실 감소, 미세기후 조절, 유기농업 도입, 생산적 여가기능 담당, 주민교류의 용이성으로 인한 공동체 복원, 치유기능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강기남 등, 2007), 자연생태계와 도시생태계를 연계하는 거점 및 코리도로서 기능한다(장동헌, 2006). 따라서 농업공원이 도시공간에 계획적으로

구현될 때 도시공원과 접목되어 나타나는 형태를 '도시농업공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농업과 농촌 전문가와의 통섭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의 각 진화상과 연계하여 대안으로서의 도시농업공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농업공원은 계획적 도시공원에 있어 시간성을 표현하는 소재로 활용될 수 있으며, 토양을 드러냄으로서 진정한 열림, 비움 공간으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일상적, 문화적 생태학의 소재로 농업이 활용될 수 있고, 식재료의 생산기능을 구현하거나 농업활동이라는 적극적이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다운 설계언어나 재생소재로서 '농업'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원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산물의 생산 및 텃밭분양, 농산물직거래, 벼룩시장, 친환경에너지 등의 도입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커뮤티니 형성과 관련하여서도 교류빈도를 증가시켜 진정한 교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고, 도시 곳곳의 불법 농산물 경작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획분야와 농업, 사회과학 분야와의 진정한 통섭을 가능하게 하는 소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정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시농업공원의 개념과 연구동향,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그 발전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 2. 도시농업공원의 개념과 연구동향

2012년 5월 23일「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도시에서의 농업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과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도시텃밭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시는 동네 뒷산 커뮤니티 가든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부산 그린트러스트는 2010년 5월 'APEC 나루공원 커뮤니티 가든', 즉 시민참여형 농업체험공원을 개원하여 공원이라는 공간에 농업기능을 수용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백화점 등 민간 상업시설(ex: 청량리 롯데백화점)에서는 옥상공원에 농업기능을 도입하여 백화점의 방문빈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는 도시농업을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도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을 의미하며 시·군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동법 제8조에는 도시농업의 유형을 주택활용형, 근린생활형, 도심형, 공장형 공원형, 학교교육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중 근린생활형이나 공장형 공원형은 도시공원에 농업생산 기능이 추가된 형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도시농업은 일반적인 도시-농촌의 공간적 경계를 벗어나 도시공간에 농업과 농촌의 삶의 방식 도입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도시계획가와 농촌계획가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법적인 정의 이외에 도시농업의 학문적 정의와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농업은 도시라는 법적 테두리 내의 유휴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농업행위를 의미한다(권광식과 최덕천, 2005; 강기남 등, 2007). 도시농업관련 연구동향을 조감해 보면, 개념과 문제점(Rakodi, 1988; Ashebir et al., 2007), 인식 및 현황분석(장동헌 등, 2006; 장보경 등, 2011), 관련정책(Page, 2002; 장동헌, 2009), 도시 확장이나 지속가능성(김수봉 등, 2002; Bezemer, 2007), 환경적 위험성(Lynch et al., 2001; Pasquini, 2006; Mireri et al., 2007), 빈곤퇴치 등 식량확보 차원(Schultz, 1966; Memon and Lee-Smith, 1993) 등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으나, 도시공간 내어서 도시농업을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와 관련된 발전적 논의는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반면, 정책적으로는 도시농업과 공간적 개념이 융합된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였는데, 식생녹지, 농업체험공원, 텃밭가든, 주말농장, 다차(러시아),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 독일), 할당채원지(allotment garden: 영국), 시민농원(일본), 원예농원(네덜란드), 가족농원(한국), 커뮤니티가든(community garden: 캐나다, 미국), 키친가든(kitchen garden: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직농장(vertical farm)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획적 도시공원에 농업적 기능이 새롭게 부과되어, 도시공원과 농업생산의 통섭(consilience)이 실현된 이 독특한 공원의 형태를 '도시농업공원'으로 이해하고 그 발전가능성을 진단하였다. 관련하여 간혹 '농업농촌체험테마파크(이주엽과 김용근, 2008)', '농업·농촌테마공원(이경진과 송병화, 2009)', 도시농업클러스터 및 혁신도시(권광식과 최덕천, 2005; 최수명과 김영주, 2005) 등의 용어도 쓰이고 있으나, 이는 도시농업공원과 운영주체, 지리적 위치, 이용주체 등에 있어 차별적이다.

## 3. 도시농업공원의 계획적 함의

계획가들은 도시공원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 도시농업공원을 현실화하는데 있어, 공간이라는 물리적 영역을 다루면서 지역에 대한 맥을 짚고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계획분야에서 도시농업공원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도시공원에 있어 농업생산 코드는 단선적 설계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도시와의 소통 수단이자 지속가능성, 저탄소 실천공간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생산하는 공간을 구획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순환, 생산과 소비의 공존, 공원의 경제성 등 거시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잉여농산물의 거래를 위한 직거래장터나 거리시장, 퇴비장, 농업부산물 처리장, 교육장, 체험장, 신재생에너지 활용공간 등의 도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대사회에 있어 농업은 쇠퇴하는 1차 산업일 뿐이지만, 전통사회에 있어 그것은 자연과 인간의 접점이었으며 지역공동체의 모태였다. 따라서 도시공원에 농업을 도입하는 것은 도시공원의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공동체의 복원까지, '인간'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동반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물리적 공급만으로 형성된 익명의 집단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 복원의 과정이자 방법으로, 진정한 이웃 만들기의 매개체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동 과수원이나 공동 텃밭이 농산물의 파종과 재배, 수확 등 농업 전 과정을 함께하는 생산교류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셋째, 도시농업공원의 농산물은 도시의 일반 조경식물과 상이하므로, 그들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도입될 농산물의 기본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존 녹지와의 배치문제, 배수체계, 관수체계, 멀칭시스템, 적절한 작물 토심, 양질의 토양확보, 적절한 단위필지 구분, 영양분의 공급, 해충관리, 계절적 편차 극복, 생산을 위한 기초공간 도입(ex: 농업창고) 등에 대한 근본적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도시공원에 있어 농업의 도입은 단순한 식량생산에 국한되지 않는다. 각종 유실수, 보리나 밀, 양배추 등처럼 관상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다양한 농산물의 도입과 적용으로 도시 내 농업경관자원이자 복합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농업적 코드를 활용하여 체험프로그램의 적극적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 농작물의 성장기간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민의 생태적 의식수준을 높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 될 것이다.

여섯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미 지정된 상황에서 도시공원이라는 공간위에서 도시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테두리가 더 견고해질 필요가 있다. 일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공원시설의 종류는 조경, 휴양, 유희, 운동, 교양, 편익, 공원관리, 기타 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농업과 관련된 직접적 언급은 아직 수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도시공원 내에 농업적 설계언어가 활발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관련법들의 개정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일곱째, 도시농업을 실행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이용전략이 필요하다. 도시농업 실행 공간은 평면적 공원과 같이 면적이 넓은 공간 이외에도, 옥상이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복합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공간과 공공공간의 유휴공간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여덟째, 도시공간 내에 도시농업을 도입할 경우 농업·농촌 전문가의 역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시공간 안에 '農'을 도입한다는 것은, 소비적 도시에 '생산적 코드'를 결합하고, '1차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하며,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권오상 등, 2003)를 도시로 확장하는 과정(rural sprawl)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단순한 기능의 도입을 넘어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에는 전문가들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V. 결 론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진화상을 구조화하여 흩어진 흐름들을 종합하고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각 진화상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향후 도시공원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종합하여 구조화한 도시공원의 열네 가지 진화상의 키워드는 지역공동체, 연계성, 생산성, 효율성, 다양성, 경제성, 공공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원에 농업생산 기능이 융합된 도시농업공원을 도시공원의 진화 모델 중 하나로 수용하여 그 발전가능성을 진단하고 계획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도시공원이 지역 공동체 복원 수단으로서 도시기능과 유기적으로 호흡하고, 생산성과 수요창출, 시장의 흐름을 고려하여 도시의 진정한 공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농업 및 농촌 전문가들은 도시농업공원의 계획과 현실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상적 화장술의 공원으로 수렴되지 않도록 진정성과 생산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도시농업공원의 계획하는데 필요한 계획요소 도출 및 성장모델, 참여자들의 수요적 특성 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길 고대해 본다.

## 참고문헌


1. 강기남, 이종근, 김기황, 이만형, 2007, 텃밭을 이용한 도시농업의 활성화방안, 건설기술연구소 논문집, 26(1), 167-176.
2. 강연주, 김정화, 배정한, 2008, 인천청라지구 조경설계공모를 통해 본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의 설계 전략, 한국조경학회지, 36(5), 42-54.
3. 권광식, 최덕천, 2005, 도시농업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네트워크, 한국협동조합연구, 23(1), 59-77.
4. 권오상, 2000, 가상순위결정법을 이용한 자연생태계의 경제적 가치평가, 경제학연구, 48(3), 177-196.
5. 권오상, 안동환, 이성우, 2003, 농업 및 농촌의 유지에 의한 도시혼잡비용 감소효과의 계측, 농업경제연구, 44(1), 153-173.
6. 김규일, 이창효, 이승일, 2010, DELTA 모델을 이용한 교통에너지 및 탄소배출 시나리오 분석, 국토계획, 45(6), 117-135.
7. 김도경, 최원만, 홍형순, 2008, 강북 대형공원 기본계획, 한국조경학회지, 36(4), 1-14.
8. 김성균, 2003, 수원시 2002 월드컵 종합체육공원 기본계획, 한국조경학회지, 30(6), 119-127.
9. 김성균, 2007, 면목역 만남의 광장 설계, 한국조경학회지, 35(1), 20-27.
10. 김성진, 2009, 기후변화에 대응한 관광자원개발 지표의 개발, 관광학연구, 33(7), 227-244.
11. 김수봉, 조진희, 정응호, 2002, 환경친화적 도시와 도시농업, 환경과학논총, 7(1), 71-91.
12. 김아연, 2005, 브리지 파크 국제설계경기에 나타난 현대 조경설계의 경향, 한국조경학회지, 33(5), 15-30.
13. 김아연, 2009, 공원화 사업을 통한 도시재생의 그늘, 뉴욕 런던 서울의 도시재생 이야기, 서울: pixelhouse.
14. 김정윤, 2004, 대만 치치 지진 메모리얼: 접근과 설계과정, 한국조경학회지, 32(5), 129-136.
15. 박근현, 배정한, 2008,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설계공모에 나타난 대형 공원의 설계 전략, 한국조경학회지, 36(5), 13-25.
16. 박율진, 2010, 도시공원녹지 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의식: 익산시 일반이용자와 환경단체의 의식비교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45(1), 199-209.
17. 배정한, 2002, 다운스뷰파크 국제설계경기를 통해 본 조경설계의 새로운 전략, 한국조경학회지, 29(6), 62-71.
18. 배정한, 2004a, Landscape Urbanism의 이론적 지형과 설계 전략, 한국조경학회지, 32(1), 69-79.
19. 배정한, 2004b, 현대 조경 설계의 이론과 쟁점,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 배정한, 2007, 조경의 시대, 조경을 넘어, 파주: 도서출판 조경.
21. 성현찬, 2007, 경기도 도시공원의 지정·조성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농촌계획, 13(3), 111-122.
22. 안명준, 배정한, 2009, 통합적 환경설계 이론 기초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7(2), 14-25.
23. 윤희정, 변재상, 김인호, 2008, 학교숲 속성별 가치평가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6(3), 29-38.
24. 이경진, 송병화, 2009, 예산군 농업·농촌 테마공원 계획, 농촌계획 15(1), 89-99.
25. 이상경, 조경진, 2003, 열린 내러티브 구조를 이용한 환경설계 방법 연구: 용산 아리랑 문화공원을 설계사례로, 한국조경학회지, 31(2), 12-27.
26. 이상민, 조정송, 2004, 서울숲 조성 설계공모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1(6), 15-27.
27. 이상민, 2006, 설계 매체로 본 한국 현대 조경설계의 특성: 현상설계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8. 이승일, 2010, 저탄소·에너지절약도시 구현을 위한 우리나라 대도시의 토지이용: 교통모델 개발방향, 국토계획, 45(1), 265-281.
29. 이주엽, 김용근, 2008, 체험형 농업테마파크 개발 잠재력 검토: 농협 안성목장 개발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14(3), 1-9.
30. 장동헌, 2006, 생태지향형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1. 장동헌, 2009, 도시농업 육성의 정책적 함의, 산업경제연구, 22(2), 979-994.
32. 장동헌, 소순열, 유찬주, 2006, 도시농업의 인식 및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전주시 도시민을 사례로, 지역사회연구, 14(3), 91-105.
33. 장보경, 최윤지, 황정임, 2011, 도시농업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19(3), 511-529.
34. 정영진, 정욱주, 2009, 지역정체성 구현을 위한 순천 교육문화 공간 조경계획, 농촌계획, 15(2), 9-17.
35. 정욱주, 제임스 코너, 2005, 프레쉬 킬스 공원 조경설계, 한국조경학회지, 33(1), 93-108.
36. 주신하, 2008, 현대 대표 도시공원에 대한 평가: 만족도 및 경관이미지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

회지, 36(4), 36-47.
37. 최수명, 김영주, 2005, 농업혁신도시의 표준 프레임 워크 도출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1(4), 17-24.
38. 한소영, 조경진, 2010, 서울시 도시공원의 장소적 재현: 기념성, 상징성, 장소기억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8(2), 37-52.
39. 홍성권, 1998, 여의도공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 이단계 이선 가치 평가추정법을 적용하여, 한국조경학회지, 26(3), 90-103.
40. Ashebir, D., M. Pasquini, W. Bihon, 2007, Urban agriculture in Mekelle, Tigray state, Ethiopia: Principal Characteristics,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for further research and development, Cities, 24(3), 218-228.
41. Bezemer, D., 2007, Agriculture, development, and urban bias, World Development, 36(8), 1342-1364.
42. Hidding M. C., A. T. J. Teunissen, 2002, Beyond fragmentation: new concepts for urban-rural development,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58, 297-308.
43. Kaplan, R., M. E. Austin, 2004, Out in the country: sprawl and the quest for the nature nearby,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69, 235-243.
44. Lynch, K., T. Binns, E. Olofin, 2001, Urban agriculture under threat, Cities, 18(3), 159-171.
45. Memon, P. A., Lee-Smith, D., 1993. Urban agriculture in Kenya, Canad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 27(1), 25-42.
46. Mireri, C., P. Atekyereza, A. Kyessi, N. Mushi(2007) Environmental risk of urban agriculture in the Lake Victoria drainage basin: A case of Kisumu municipality, Kenya, Habitat International 31, 375-386.
47. Racodi, C., 1988, Urban agriculture: Research questions and Zambian evidence,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26(3), 495-515.
48. Page, B., 2002, Urban agriculture in Cameroon: an anti-politics machine in the making?, Geoforum, 33, 41-54.
49. Pasquini, M. W., 2006, The use of town refuse in urban agriculture around Jos, Nigeria: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s,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354, 43-59.
50. Schultz, T., 1966, Urban development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gricultur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5(1), 1-9.
51. Sullivan, W. C., S. T. Lovell, 2006, Improving the visual quality of commercial development at the rural-urban fringe,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77, 152-166.
52. Wilson, E. O., 1998,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New York: Random House.
53. Yu, X. J., C. N. NG, 2007, Spatial and temporal dynamics of urban sprawl along two urban-rural transacts: a case study of Guanzhou, China,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79(1), 96-109.

접 수 일: (2012년 5월 25일)
수 정 일: (1차: 2012년 6월 4일, 2차: 6월 18일
3차: 6월 24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24일)
■ 3인 익명 심사필